

##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

조남훈 | 한국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chonh@kida.re.kr

2023년 북한경제의 성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료로 미루어 볼 때 2023년 북한경제의 일부 분야는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는 상당히 불안정한 식량 수급 사정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2023년 연초의 식량 수급 사정이 매우 불안정하였는데, 권태진(2023)은 ‘2022년 연말에 이어 2023년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는 소문이 무성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sup>1)</sup> 그는 ‘시장 쌀가격이 kg당 6,000원에 달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는데, 6월까지 5,000~6,000원 선을 유지하던 쌀값은 9월 초 들어서 상승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중순부터 지역에 따라 쌀 1kg 가격이 7,000원까지 치솟기도 하였다. … 2023년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이처럼 크게 나타난 것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sup>2)</sup>

그러면 제조업 상황은 어떠한가? 2023년 상황을 추정하기 위하여 2022년의 실적을 살펴보자.<sup>3)</sup> 2022년에 북한 제조업은 별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추정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북한 제조업 분야의 경제성장률은 -4.6%였다. 2020년 및 2021년 등 이전 연도 제조업 분야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3.8% 및 -3.3% 등이었다는 것을 볼 때, 2022년도의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2022년 제조업 분야의 성장 부진은 주로 중화학공업의 침체에 기인한 바가 크다. 2022년에 경공업 분야는 5.0%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학 분야는 -9.5%의 역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전 연도인 2020년 및 2021년 등의 경공업 성장률이 각각 -7.5% 및 -2.6%였던 데에 비해서 2022년의 경공업 성장률 5.0%는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020년과 2021년의 중화학공업

1) 권태진, 「2023년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평가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12월호,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3, p.22.  
2) 권태진, 위의 논문, pp.22~23.  
3) 통계청,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대전광역시: 통계청, 2023, p.102.

성장률은 각각 -1.6% 및 -3.7% 등으로, 해당 연도의 경공업 성장률에 별로 뒤처지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2022년의 중화학공업 성장률 -9.5%는 경공업의 플러스 성장률에 비해서 크게 뒤지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중화학공업의 성장률 추세는 대체적으로 군수공업의 성장률 추세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리라고 추정된다. 상당수의 군수공장이 중화학공업에 포함되고, 군수공장과 전후방으로 연관된 공장들 대부분도 중화학공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 군수산업의 성장률도 상당히 저조했다고 추정된다.

2022년에 실제로 전력화된 북한 무기체계의 전력화 현황을 살펴보면 이런 추정이 상당히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에 북한군의 지상장비 보유 대수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에 2022년 지상 장비 보유 대수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는 2022년에 실제로 야전에 배치된 북한 무기체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2021~22년 기간에 북한 군수공장이 해당 무기체계를 거의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중에 노후 무기체계를 대체하는 대체소요가 포함되었을 수 있으나 그 분량은 약 1~2%에 불과하다고 추정된다.<sup>4)</sup> 결론적으로, 앞에서 예상된 2022년 군수공업의 낮은 성장률은 실제 자료에 의해서도 검증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 북한군의 지상장비 보유 대수 변화 추이

(단위: 대)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차	보유	3,700	3,900	4,100	4,200	4,300	4,300	4,300	4,300	4,300
	증감	-	200	200	100	100	0	0	0	0
장갑차	보유	2,100	2,100	2,100	2,200	2,500	2,500	2,500	2,600	2,600
	증감	-	0	0	100	300	0	0	100	0
야포	보유	8,500	8,500	8,500	8,600	8,600	8,600	8,600	8,800	8,800
	증감	-	0	0	100	0	0	0	200	0
다련장/방사포	보유	4,800	5,100	5,100	4,800	5,500	5,500	5,500	5,500	5,500
	증감	-	300	0	-300	700	0	0	0	0

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그렇다면 북한 군수산업의 2023년 실적은 어떠한 것인가? 2022년과는 상당히 다르리라고 추정된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 때문이다. 2023년 북한은 상당량의 군수품을 러시아에

4) Nam Hoon Cho, "North Korea's Defence Industry." *The Economics of the Global Defence Industry*, edited by Keith Hartley and Jean Beli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20, pp.582-588.

공급하였다. 여기에는 포탄이나 미사일 같은 무기뿐 아니라 군 의복과 같은 군수물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북러 무기거래 규모와 관련하여 “작년 말 기준 컨테이너 약 5천여 개 분량이 수출되었는데 이는 152mm 포탄 기준으로는 약 230만발, 122mm 방사포탄 기준으로는 약 40만발 분량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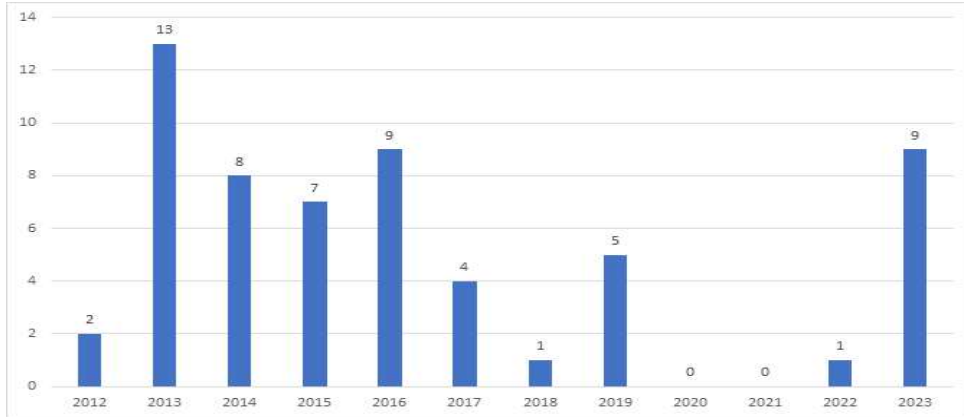
2022년 이후에 미국 국무성은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해 왔다. 2023년 1월 20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와그너 그룹에 대한 무기 판매를 부인하는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와 북한에서 찍은 두 장의 위성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이다.<sup>6)</sup> 또한 2023년 10월 13일, 그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인도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이 넘는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진항에서 러시아로의 운송을 기다리는 컨테이너 모습을 찍은 위성 사진을 공개하였다. 그는 이 컨테이너가 러시아 동부의 두나이 항구를 거쳐서 러시아의 서남부 티호레츠크의 탄약고로 운송되었다고 말했다.<sup>7)</sup>

그런데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사실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명되고 있다. 첫째, 푸틴과 김정은이 2023년 9월 13일에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서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이 북러 간의 무기거래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 국방장 세르게이 쇼이구는 정상회담 이전인 2023년 7월, 70주년 전승절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담한 후에 북한의 무기 전시회 및 군수공장 등을 참관함으로써 북한 무기체계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김정은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 횡수도 세르게이 쇼이구의 방문을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은 대러시아 무기 수출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아래 [그림 1]에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현지 지도한 군수공장의 수가 연도별로 나타나 있다. 2000~02년 사이에 현지 지도한 군수공장 숫자는 0~1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2023년에 그 수는 9곳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군수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는 8월 3~5일과 8월 11~12 등, 세르게이 쇼이구가 북한의 무장장비전시장을 방문한 7월 27일 직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군수공장 방문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과 합의한 무기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5) 『연합뉴스』, 「신원식 북, '근거리형 전술유도탄' 러시아 수출 가능성」, 2024. 1. 11.  
 6) 『연합뉴스』, 「북 부인하자 마, 북한의 러 용병 그룹 무기 전달 사진 권역공개」, 2023. 1. 21.  
 7) 『중앙일보』, 「컨테이너 1000개 분량된다...백악관, 북·러 무기거래 사진 공개」, 2023.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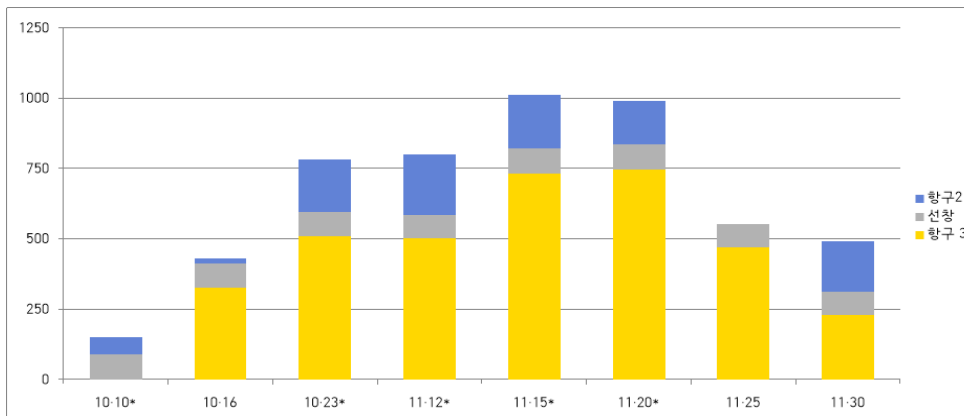
[그림 1] 김정은 집권 이후 현지 지도한 군수공장 수(2012~23년)



자료: 통일연구원,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분석 DB」(<https://www.kinu.or.kr/nksdb>),  
홍민, 「북한 김정은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 분석」, Online Series,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3에서 재인용.

셋째,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운송하는 모습이 위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미국의 CSIS 자료에 따르면 최근 나진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러시아로 수출하는 무기로 채워져 있다고 추정된다. 아래 [그림 2]에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나진항에서 관측된 컨테이너의 개수가 나타나 있다. 10월 23일에서 11월 20일 사이에 부두의 컨테이너 선적 활동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나진항의 선적 컨테이너 개수(2023. 10. 11~11. 30)



자료: CSIS, "Activity at Najin Points to Continued DPRK-Russia Arms Transfer," Beyond Parallel, Dec. 8, 2023.

넷째, 북한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구소련제 ‘BM-21 그라드(Grad)’ 다연장포(MLRS)를 운용하는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격전지인 바흐무트(Bakhmut)에서 러시아로부터 빼앗았다고 추정되는 북한산 로켓을 사용하여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하였다.<sup>8)</sup> 또한 지난 2024년 1월 9일, 미국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지난 6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발표하였다.<sup>9)</sup> 이전에 발견된 폭탄과 로켓 등만이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러시아에 제공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한편, 무기만이 아니라 군수·물자 공급도 이루어진다고 추정된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황해남도 해주, 황해북도 사리원, 평안북도 신의주 등에 있는 국방성 후방총국 산하의 군수품 생산공장에서 러시아에 수출할 군수용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군수품은 주로 방한 군복, 방한화 및 무장 혁대 등인데, 이를 생산하여 선박과 열차로 나선을 거쳐 러시아로 보내진다고 전하고 있다.<sup>10)</sup>

그런데 북한의 군수품 생산 증가는 필연적으로 무기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생산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방한복이나 방한 구두에 쓰이는 재료는 북한 내 조달이 힘들어서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대북제재 환경하에서 관련 재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될 수밖에 없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2023년 9월 중순께부터 북한 국방성에 소속된 무역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 옷감 및 솜 등의 섬유제품을 대거 수입하기 시작했다고 한다.<sup>11)</sup>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섬유제품을 가공해서 러시아로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상당 부분이 실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방한복이나 방한 구두 등 대러 군수품 수출에 필요한 재료 조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3년 북한의 방한 의류용 섬유 소재 수입 상황을 중국해관 통계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아래 <표 2>에 관련 품목의 수입 현황이 나타나 있다.

8) *Financial Times*, "Ukraine fires North Korean rockets to blast Russian position." 2023. 7. 29.

9) 『연합뉴스』, 「미, 러, 지난 6일에도 우크라이나 북한산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2024. 1. 10.

10) 『데일리 NK』, 「국방성 산하 군수품 공장에서 러시아 수출용 방한 군복 제작」, 2023. 11. 14.

11) 『데일리 NK』, 「북, 무역회사들, 양말, 담요, 옷감 대거 수입…동기훈련 대비?」, 2023. 10. 30.

<표 2> 북한의 방한군복용 섬유 소재 및 충전재 수입 현황(2023.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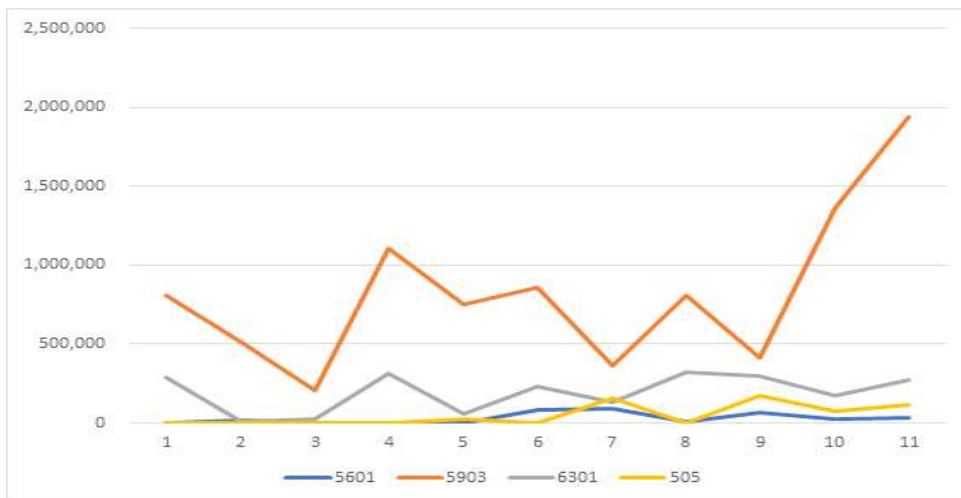
(단위: 미국 달러)

구분	기타 수공업 직물 재료·제품 충전재	기타 플라스틱 처리 직물·섬유	담요 (전자 담요 제외)	충전재용 깃털: 다운
HS 코드	HS 5601	HS 5903	HS 6301	HS 0505
1월	1,106	805,398	285,612	0
2월	18,448	515,469	8,785	0
3월	1,834	204,743	28,642	0
4월	4,678	1,103,786	313,703	0
5월	152	753,960	57,525	22,500
6월	81,165	862,928	234,307	0
7월	88,222	362,698	134,870	155,136
8월	10,239	808,356	321,349	0
9월	68,355	409,492	298,813	170,988
10월	29,013	1,363,541	176,341	72,532
11월	31,538	1,941,201	276,595	114,178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stats.customs.gov.cn/indexEn>, 검색일: 2024년 1월 8일).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네 가지 품목의 수입 모두가 9월 이후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2023년 방한군복 소재 수입 현황(1~11월)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stats.customs.gov.cn/indexEn>, 검색일: 2024년 1월 8일).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네 가지 품목의 평균 수입액은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9월 이후에 각각 67.0%, 82.8%, 44.8% 및 437% 증가했다.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도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서 앞선 언론 보도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북한의 방한 군복용 섬유 소재 및 충전재의 월평균 수입액

(단위: 미국 달러, %)

구분	기타 수공업 직물 재료·제품 충전재	기타 플라스틱 처리 직물·섬유	담요 (전자 담요 제외)	충전재용 깃털: 다운	
HS 코드	HS 5601	HS 5903	HS 6301	HS 0505	
월평균 수입액	1~8월	25,731	677,167	173,099	22,205
	9~11월	42,969	1,238,078	250,583	119,233
증가율	67.0	82.8	44.8	437.0	

중국해관통계(<http://stats.customs.gov.cn/indexEn>, 검색일: 2024년 1월 8일).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생산은 필연적으로 국방 부문의 생산 증가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의 생산 증가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최종 무기체계 생산을 위해서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 생산한 중간재나 해외로부터 수입된 중간재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수산업이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무기 수출은 소비 증가를 통해서 북한경제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한 군수경제 분야의 분리성으로 인해 군수경제의 생산 증가가 다른 경제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sup>12)</sup>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보이는 이유이다.

산업연관표로부터 도출된 생산유발계수가 그러한 효과를 측정하도록 해준다. 그런데 생산유발계수는 품목별(상품별) 생산유발계수와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 등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품목별(상품별) 생산유발계수는 특정 국산품의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할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의 크기를 나타낸다. 특정 부문 상품의 최종수요 1단위 발생에 따라 전 산업에서 유발된 생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 1단위가 유발한 생산액의 크기를 가리킨다. 즉,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대한 수요가 1단위 발생하면 생산이 얼마만큼 유발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 것이다.

백재옥·정희원·이현재(2019)에 따르면, 국방비가 1단위 증가할 때 발생하는 한국의 생산유발계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12)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What do Weapons Sales to Russia Mean for North Korea’s Economy?,” *38 North*, Sep. 14, 2023.

〈표 4〉 한국 국방비의 생산유발계수

연도	국방소비지출	국방고정자본형성	국방비
2015년	1.387	2.138	1.587
2010년	1.416	2.232	1.643

자료: 백재욱·정희원·이현재(2019).

그러면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부문 중에 어떤 부문이 국방 부문의 생산 증가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산업연관표를 알아야 하나, 불행히도 우리가 가진 북한 산업연관표 자료는 전무하다. 하지만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 국방 부문의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생산유발계수로 북한 사정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비록 북한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나, 군수산업의 고유한 특성상 파급효과를 미치는 산업 분야는 유사하리라는 전제하에서 일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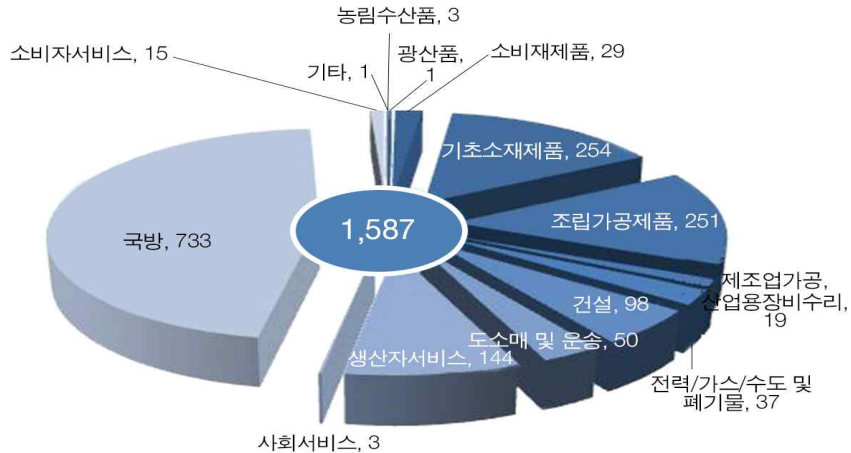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 가운데에 국방소비지출의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제품과 그 유발계수 등을 차례로 살펴보면, 석탄·석유제품(0.038), 정보통신·방송서비스(0.034), 사업지원서비스(0.028), 운송장비(0.026), 전력·가스·증기(0.026), 금속가공제품(0.025) 및 화학제품(0.023) 등이다. 한국의 군수산업이 중간재로 에너지원 제품이나 중화학공업 제품 등을 사용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한편, 국방고정자본형성 생산유발계수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여러 가지 산업 가운데에 국방고정자본형성의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제품과 그 유발계수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운송장비(0.464), 금속가공제품(0.320), 건설(0.299), 1차 금속제품(0.127), 컴퓨터·전자·광학기기(0.120), 전문·과학기술서비스(0.113) 등이다.<sup>14)</sup>

한편, 총국방비에서 차지하는 국방소비지출과 국방고정자본형성 각각의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국방비 1단위 증가로부터 발생하는 생산유발계수를 분야별로 측정한 후, 그 비중을 산정하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국방비 자체의 직접 생산유발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생산유발 효과는 전체 생산유발 효과 1,587에 대해서 기초소재제품(254), 조립가공제품(251), 생산자 서비스(114) 및 건설(98)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국방 분야 생산이 광산품(1), 농림수산물(3), 사회서비스(3) 및 소비재제품(29) 등의 산업 분야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13) 백재욱·정희원·이현재,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5년 국방산업연관표 작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9, pp.36~37.  
14) 백재욱·정희원·이현재, 위 보고서, pp.43~44.

[그림 4] 2015년 국방비 지출의 생산유발효과 종합(1,000 기준)



자료: 백재욱·정희원·이현재,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5년 국방산업연관표 작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9, p.52.

이러한 국방 분야의 여타 산업 파급효과는 북한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발생하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군수산업 생산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국방 분야의 생산 증가는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한국의 생산유발계수 사례처럼 주로 에너지 제품의 증가나 운송장비 및 금속가공제품 등의 생산 증가를 초래하리라고 예상된다. 물론 다른 측면도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무기의 전자화 수준이 한국의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지므로 정보통신·방송서비스(0.034)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으리라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2023년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은 북한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한편, 2024년 북한경제 성적표의 상당 부분도 북한 대러시아 무기 수출의 지속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러시아가 북한 무기체계 수입을 선호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무기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존에 생산하여 비축한 북한 포탄의 신뢰성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에 비축 포탄을 계속 공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화약은 습기에 취약하므로 포탄 비축시설의 제습 능력은 필수적인데, 북한이 보유한 포탄 비축시설이 충분한 제습 능력을 지니고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포탄이나 미사일 추진제는 15년 정도가 지나면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데, 북한 포탄이나 미사일 등이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서 비축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경험을 상기해 볼 때, 북한 포탄의 불량률은 상당히 높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북한이 기존의 비축 포탄을 러시아에 계속하여 제공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한 우크라이나 포병 사령관은 표기 생산연도로 판단해 볼 때, 북한 탄약은 1980년대 및 1990년 생산 제품이라고 추정된다면서, 병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량률로 인해서 북한 포탄 사용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sup>15)</sup> 그런 여건에서, 향후 북한 포탄이 계속 러시아에 제공된다면, 해당 포탄은 북한 군수업체가 새로이 생산한 포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북한의 무기 공급이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만들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런데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장기화되면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 군수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북한경제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현재의 북한경제 상황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계속된다면, 북한이 반대급부로 획득한 식량, 에너지 및 경화 등이 북한경제 회복을 돕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군사도발 및 핵개발 등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편, 무기 제공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러시아의 첨단기술은 북한의 군사기술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그러한 기술이 탄도탄 재진입기술 및 다탄두기술 등이라면 이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는 특별히 유엔안보리가 금지한 탄도탄 기술에 관한 협력은 없다고 천명하였으나, 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형편이다.

둘째, 러시아가 북한 무기체계 수입을 선호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과의 무기 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감 때문이다. 최근까지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 부과를 명시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하면서도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는 북한 인권문제 표결 등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대북정책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나타낸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사용된 우주발사체 발사 규탄을 위한 안보리 결의도 러시아 및 중국 등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과거 대비 러시아의 부정적인 대북 입장이 상당히 완화된 모습이다. 그 결과,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태도가 변한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외중에서 서방세계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기 때문이다. 둘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추세 속에서 탄약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북한으로부터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급부상한 것이 대러시아 무기 수출이다. 러시아는

15) *Financial Times*, "Ukraine fires North Korean rockets to blast Russian position," 2023. 7. 2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심각한 무기 부족을 겪고 있다. 심지어 치장되었던 구형 무기체계를 다시 끄집어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구형 무기체계, 그 부품품과 탄약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필요한 133mm 탄약과 152mm 탄약 등의 상당량을 비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러시아의 전쟁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다급해진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무기 공급을 북한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2023년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상과 실무진 등이 2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무기체계를 살펴보고 무기체계 공급에 대해 협의하는 등 상호 협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충분한 탄약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과거 김정일은 “현대전이 기름전쟁, 알전쟁”이라고 하였는데, 김정일은 현대전의 승패가 유류, 총탄 및 포탄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확신을 지니고 미국과의 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언급한 적이 있다.<sup>16)</sup> 김정일은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전략물자의 비축 관련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기 때문에 상당한 총탄 및 포탄 등이 북한에 비축되어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한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러시아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경제 및 핵심군사기술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오랜 지원국이던 중국이 북한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미·중 전략경쟁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북한을 무작정 지원하지는 않는다. 현재 중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경제성장을 저하로 미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투자유치 등을 필요로 하는데, 북한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다. 둘째, 중국은 한·일·중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북한에 대한 명백한 지원이 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셋째, 중국은 북핵 문제를 대미 관계 운용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나, 북한의 본격적인 핵능력 고도화는 중국의 국제관계 운용과 자국 안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러시아가 국제협력의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상호 협력이 양국에 단기적인 이익을 주어서이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큰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특히 정찰위성 발사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러시아에서 공급받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상호 필요성이 양국 간 협력 추진의 동기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북한 무기체계 수입을 선호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되더라도 범위 및 기간 등의 측면에서 확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16) 『연합뉴스』, 「김정일 ‘현대전은 기름전쟁, 알전쟁」, 2005. 3. 16.

한다. 러시아-북한의 협력이 확장되기 어렵고, 단기적이면서 특정 분야 협력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환경이 대러시아 무기 공급을 통해서 단기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은 이 기회에 대러시아 협력의 이점을 확실하게 얻으려고 한다. 현재 중국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만이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를 통해 자국 산업가동률 제고, 그동안 교체하지 못한 자국 비축 탄약의 대러 수출을 통한 교체 효과 및 러시아로부터의 필요 군사기술 획득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종결되면 러시아는 제재 해제 및 국제사회 복귀 등을 노리면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 및 경제 회복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지속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북·러 협력은 이와 같은 복수의 억제 요소로 인해서 단기적 성격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된다.

러시아의 북한 무기 도입 이유는 중국이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인데, 향후 중국이 정책을 변경하면 러시아는 북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대신에 국제적인 수출입 제한이 없는 중국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도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관계는 더 유지될 수 없을지 모른다.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높은 북한제 무기체계보다 중국 무기체계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북러국경이 개방되고 철도가 운행되면서 육상을 통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두나이(dunai)와 같은 군사항구를 통한 해상 수송도 가능해졌다. 현재 북한은 상당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할 수 있는 군수품 생산시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서 관련 원료 및 중간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 지속의 핵심은 북한의 중간재 조달 능력이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과 그에 따른 2024년 북한경제 성장은 이러한 여건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만약 러시아가 원재료 및 중간재를 북한에 충분히 공급해 준다면 이러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것인데, 이는 2024년 북한경제 전체에서 상당 수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태진, 「2023년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평가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1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3.
- 백재옥·정희원·이현재,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5년 국방산업연관표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19.
- 통계청,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 홍민, 「북한 김정은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 분석」,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 2023.
- Nam Hoon Cho, 「North Korea's Defence Industry」, *The Economics of the Global Defence Industry*, edited by Keith Hartley and Jean Belin(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20).

### <기사자료>

- 『Daily NK』, 「국방성 산하 군수품 공장에서 러시아 수출용 방한 군복 제작」, 2023. 11. 14.
- \_\_\_\_\_, 「북, 무역회사들, 양말, 담요, 옷감 대거 수입…동기훈련 대비?」, 2023. 10. 30.
- 『연합뉴스』, 「김정은 ‘현대전은 기름전쟁, 알전쟁」, 2015. 3. 16.
- \_\_\_\_\_, 「미, ‘러, 지난 6일에도 우크라이나에 북한산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2024. 1. 10.
- 『38 North』, 「What do Weapons Sales to Russia Mean for North Korea's Economy?」 2023. 9. 14.
- 『Beyond Parallel』, 「Activity at Najin Points to Continued DPRK-Russia Arms Transfer.」, CSIS. 2023. 12. 8.
- Financial Times*, 「Ukraine fires North Korean rockets to blast Russian position」, 2023. 7. 29.

### <웹사이트>

- 통일연구원,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분석 DB」, (<https://www.kinu.or.kr/nksdb>).
- 중국해관통계, <http://stats.customs.gov.cn/>.